

개인문집 소재 孝子傳의 유교적 효윤리

신태수*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효자의 모습, ‘인간인가 기계인가?’
- III. 효자전의 유형과 그 유교적 효윤리
- IV.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사상적 특징
- V. 결론

【국문초록】

조선시대 개인문집 소재 孝子傳의 주인공은 일반적 인간과는 다르다. 사적 감정을 거의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孝를 행하는 기계’와 같다. 효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효자전은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으로 나뉜다. 현실지향형에서는 작자가 個別的 孝子觀에 입각하여 효자의 인상적 국면을 포착하고, 이상지향형에서는 작자가 集團의 孝子觀에 의거하여 ‘효행 보따리’에서 전형적인 효행을 끄집어낸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교적 효윤리 체계도 다르다. 그 차이는 ‘간절한 기도’의 유무이다. ‘간절한 기도’ 내용이 없는 현실지향형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효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있는 이상지향형에서는 ‘우주적 성명을 체인하는 효자의 태도’가 강조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孝를 사회규범보다 상위에 올려놓는다는 점과 이른바 ‘유쾌한 속임수’를 구사하며 ‘있는 것’의 가치에서 ‘있어야 할 것’의 가치로 나아간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효자전, 孝를 행하는 기계,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 효행 보따리, 유교적 효윤리 체계, 유쾌한 속임수, 있어야 할 것의 가치.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문제제기

조선시대 士大夫나 中人의 문집에는 孝子傳이 적지 않다. 효자전에서 는 으레 아주 특별한 효자가 등장한다.¹⁾ 가령, 중병이 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 割股나 斷指를 하고,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凡百日常에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한다. 이른바 ‘아주 특별한 효자’의 형상에는 몇 겹의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효행 정도가 인간적 경계를 넘어서야 주목받는다든 점과 효자의 요건이 일정하게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점과 효자 탄생을 부추기는 이념이나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다층적 의미가 거의 모든 효자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효자전이야말로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효자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론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품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자전이 지닌 사회적 거울로서의 위상이 ‘내포와 외연의 다층적 의미’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밝혀지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작품론의 차원에서 효자전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가 않다.²⁾

1)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효행이 특이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곤 했다. 『世宗實錄』卷 101, 世宗 25年 8月 乙未條의 “其所行特異者 方許褒獎”에 그런 언급이 있고, 『三綱行實圖』, 『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五倫行實圖』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 즉, 조선시대 윤리 교화서에서는 대부분 효행이 특이한 경우가 실려 있다. 孝治의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효자가 아니고서는 주목받을 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2) 열 편도 채 안 되는 논문이 있을 따름이다. 대표적인 논문을 들기로 한다.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통일인문학』3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0, pp.51-68. ; 金血祚, 『朴孝娘 사건과 그 문학적 演變』, 『人文研究』10,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pp.77-105. ; 宋載邵, 『〈鄭孝子傳〉을 통하여 본 茶山 倫理觀의 一端』, 『民族文化』19, 韓國古典翻譯院, 1996, pp.153-162.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효자전이 연구자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왜 효자전이 연구자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는 짐작해볼 수 있다. 개인문집의 여기저기에 산재한 효자전을 수합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효자전이 공유하는 형식과 내용을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효자전이 공유하는 형식과 내용이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길 때, 비로소 효자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효자전은 공리적 성격이 강하다.³⁾ 孝를 독실히 행하면 효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취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 중 효행이 효자 본인에게 행복을 가져주는지는 더 따져야 할 사안이다. 조정으로부터 효행을 인정받아 復戶나 官職 除授의 대상이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으나, 조정으로부터 효행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효행의 결과가 심신의 상처를 크게 남기기 때문이다. 孝를 행하고자 하는 효자는 많아도 포상받는 효자는 적은 바이므로, 심신의 상처가 큰 효자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효자전의 공리성은 작자의 소관에만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효자전의 공리성은 공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의 반영이고, 효자전이 공유하는 내용과 형식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용과 형식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시대 개인 문집 소재 효자전의 유형 및 다층적 의미 그리고 효자전의 지배 원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제는 개인 문집도 많고 각 문집에 실린 효자전도 많다는 데 있다. 어떤 효자전을 자료로 취하느냐에 따라 논점이 달라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를 취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金均泰 교수가 『文集所在傳資料

3) 효행서사에 반영된 공리주의, 공리적 성격에 대해서는 신태수,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 『語文學』127, 韓國語文學會, 2015, pp.186-198 참조.

集』, (啓明文化社, 1986)에서 사대부·중인 문집 소재 효자전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놓았으므로, 이 자료집에서 효행서사의 내용이 뚜렷한 10편을 취택하고자 한다. 효자전 10편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작품론의 차원에서 주요 논점의 다층적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고, 효자전의 이념 내지 패러다임을 통해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결구한다는 점이 그 두 번째이다. 해당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林孝子傳(『樊巖集』卷55)
- B. 鄭孝子傳(『訥隱集』卷20)
- C. 鄭孝子傳(『茶山集』卷17)
- D. 西山 孝子傳(『西溪集』卷6)
- E. 孝子 金忠烈傳(『宋子大全』卷214)
- F. 韓孝子傳(『梅川集』卷7)
- G. 安孝子傳(『鵝溪遺稿』卷3)
- H. 孝子 林秀福傳(『牛溪集』卷6)
- I. 愼孝子傳(『黃臯集』卷6)
- J. 權孝子傳(『壺山外記』)

II. 효자의 모습, ‘인간인가 기계인가?’

효자전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르다. 봉양에 渾身을 다하느라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어떤 효자는 효행 건수가 많아 효행의 총합이 일상생활의 총합을 능가하기도 한다.⁴⁾ 효행이 이 정도이고 보면, 인간 노릇을 하기 위해 孝를 행한다기보다는 孝를 행하기 위해 인간 노릇을 한

다고 해야 옳다. 孝를 과도하게 행하면 고통이 따를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다. 斷指하거나 割股하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그 좋은 예이다. 부모가 사망하면 효행을 그칠 법도 하나, 예상과는 달리 효행을 지속한다. 3년간 죽만 먹거나 상복을 입고 여막살이가 예사이니, 부모 생전 못지않게 간절하기는 마찬가지다. 孝를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갈등이나 고통이 없다는 점에서, 효자전의 주인공을 예사 인간과 동렬에 놓을 수 없다.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효자 본인이 갈등과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효이념이 투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생득적 본성이라 할 수도 있고 외부 이념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효자전에서나 밝히고 있지는 않다. 밝히지 않더라도 짐작해볼 단서는 있다. 대부분의 효자전에서 주인공이 결혼가정에서 성장했으면서도 탄생이나 소시적부터 지극히 착했다고 하고, 소시적부터 어질기만 했다고 한다.⁵⁾ 태어날 때부터나 소시적의 성품을 언급하는 연유가 효행이 생득적 본성에서 우러나온다고 하기 위함이다. 효행의 근거를 생득적 본성에 둬으로써 出天之孝는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는 용이해졌으나, 효자도 인간인 바에야 갈등과 고통이 없을 리 없다고 하는 반론을 막아내기는 힘들어졌다. 출천지효의 양태를 설명하느라고 整合性을 포기한 셈인데, 정합성을 포기한 연유를 캐보지 않을 수 없다.

4) H를 보면, 하루 동안의 효행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 효자 임수복이 모친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밤낮으로 울부짖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단지하여 피를 입에 흘려 넣었다고 한다. 하루 동안에 세 건이 행해졌다고 하나, 효행 시간을 종합하면 하루 만에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가령 C에서는 주인공이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매우 착했다고 하고, D와 E와 H에서는 주인공이 소시적 배우지 않고도 자식으로서의 禮를 알았다고 하고, G에서는 주인공이 훈도와 교화에 힘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고 한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효자전마다 들어 있는 非整合性 모티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합성 모티프란 ‘이성적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기이한 효행’을 가리킨다. 기도로써 부모의 질환을 치유하거나 斷指하여 부모를 소생시키거나 지효로써 짐승을 감동시키거나 삶의 전부를 효행에 할애하거나 사초를 훔쳐 부모 묘를 꾸미는 모티프가 그것이다. 임효자가 아내에게 절한다고 하는 A만은 예외일 듯하나, 그렇지도 않다. 이 일화가 효자의 여러 효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아내가孝를 행할 때마다 임효자는 절할 터이므로, 비정합성 모티프에 가깝다. 결국, 효자전의 분위기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효자에게 갈등과 고통이 없다고 해도 그다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⁶⁾ 비정합성 모티프가 효자전에 어떻게 배속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A	B	C	D	E	F	G	H	I	J
1. 기도로 중병 치유하기			+				+	+		
2. 손가락 피로 소생시키기				+			+	+		
3. 지효로 짐승 감동시키기				+					+	
4. 부모 위해 일생 바치기		+			+	+				
5. 효부인 아내에게 절하기	+									
6. 사초 훔쳐 분묘 꾸미기										+

모티프 1~6 중, 효자전 D·G·H는 두 개씩을 보유하고, 그 이외의 효자전은 한 개만을 보유했다. 보유 개수에 따라 효자전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 1·2에서는 효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3에서는 효가 만

6) 독자가 효자전의 기이한 내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효자의 기이한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대상의 평가 범주에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이 있다고 할 때, 독자가 사실 영역을 벗어나서 가치 영역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물을 감발시키고, 4에서는 孝가 부모의 안위에 절대가치를 부여하고, 5에서는 孝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허리를 굽히게 하고, 6에서는 孝가 절취 행위를 정당화시켰다. 모든 孝의 작용이 비정합성 모티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정합성 모티프가 ‘상칙의 파괴와 孝의 권능 창조’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정합성 모티프가 두 개라면 한 개뿐인 경우보다 파괴와 창조의 기능이 더 우위에 설 듯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한 개뿐이라고 하더라도 파괴와 창조의 정도가 강한 비정합성 모티프라면 그 강도가 미약한 비정합성 모티프 두 개의 총합보다 더 우위에 설 수가 있다.

개수만으로 우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파괴와 창조의 기능을 더 깊게 파고들지 않을 수 없다. 비정합성 모티프가 상칙을 파괴한다고 해도, 그 정도가 일정하지는 않다. 1·3·4·5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상칙을 파괴하기도 하고, 2·6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상칙을 파괴하기도 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파괴의 정도가 훨씬 강하다. 2에서는 육신 보전을 효행으로 간주하는 儒家的 觀點⁷⁾을 파괴하고, 6에서는 목적 못지않게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義務論的 觀點⁸⁾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2와 6을 모두 보유한 효자전은 없고 어느 한 개만을 보유한 효자전은 세 편 있다. D·G·H가 그것이다. 이 세 편은 각기 개인적 차원의 비정합성 모티프도 한 개씩 보유하므로, 파괴의 정도가 전체 효자전에서 선두에 선다. 파괴의 정도가 이렇다면 창조의 정도가 강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7)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敎思想研究』37, 韓國儒敎學會, 2009, pp.126-129 참조

8) 윤리학의 개념으로서, 의도나 동기나 과정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각을 가리킨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윤진원, 『전통 도교윤리는 결과론적인 것인가 의무론적인 것인가?』, 『道敎文化研究』38, 韓國道敎文化學會, 2013, p.96 참조

비정합성 모티프인 2와 6이 유가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을 파괴한다고 할 때, 비정합성 모티프가 公理를 파괴한 셈이 된다. 효치주의의 시대에 유가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거스르기 어려운 공리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정합성 모티프가 공리를 파괴하는 데는 대단한 연유가 있을 성싶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모티프 그 자체보다는 작자의 의증을 파악해야 한다. 비정합성 모티프가 공리를 파괴한다는 설정은 일종의 창작방법이다. 창작방법의 주체는 작자이기 때문에 작자의 의증을 파악해야 의문을 풀 수 있다. 효자전의 작자가 스스로 공리를 거스른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볼 때, 작자가 孝 至上主義에 입각해 있다는 추리가 일단 가능하다.⁹⁾ 작자의 의증은 효자전 말미의 論贊部에 나타나므로, 논찬부를 통해 孝의 위상에 대한 추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로 한다.

□ 2의 사례

D. …… 보는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일으켜 후덕한 어른이라고 서로들 칭송했다. “내가 태양 불행히 늦게 태어나 古人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고인이라는 분도 반드시 옛날에 이 분과 같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해 마지않았다. 지금 처사가 이미 돌아가셨다. 아! 이런 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西山 孝子傳, 『西溪集』卷6)

G. 아! 손가락의 피가 어찌 죽을 병을 낮게 할 수 있으랴. 아이의 정성이

9) 국정 교화서라 할 수 있는 『三綱行實圖』에서도 ‘비정합성 모티프의 공리 파괴 현상’이 적지 않다. <郭巨埋子>, <明達賣子>, <趙婦鬻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효행서사에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하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목숨을 버린다는 점에서 공리의 파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옥영정, 『삼강행실도 편찬 배경과 조선 초·중기 사회의 변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pp.91-92의 논의에 의거하면, 孝 至上主義의 談論이 공리 파괴담을 회자시키는 동인이 되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금석을 뚫고 귀신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미 끊어진 목숨을 다시 하루 밤낮 뒤에 소생케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생각함에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슬픈 마음이 들게 한다. …… 아아! 인륜을 아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부모가 없겠으며 누군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왕왕 선량한 천성을 잃고 사육에 뒤덮혀 몽매해져서 죽은 부모를 살려낼 수 없음은 물론이요 도리어 살아계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이 응준을 본다면 아마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安孝子傳, 『鵝溪遺稿』卷3)

□ 6의 사례

- J. 贊해 말한다. “옛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한 일은 많았으나 이런 사례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해마다 봄바람에 풀이 돌아나면 권효자의 마음 또한 그 잎사귀마다 함께 푸르리라. 세상에는 묘각을 크게 세우는 자들이 헛되이 건물의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왕왕 노래하고 춤추고 도박하는 곳으로 쓰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아! 무리들로 하여금 권효자의 일을 듣게 한다면 어찌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겠는가.”(權孝子傳, 『壺山外記』)

모티프 2와 6은 화자가 서로 다르되 견해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있다. 모티프 2는 신체 훼손담이자 환자 소생담이다. 신체 훼손담의 측면에서 볼 때는 毀傷滅絕之罪¹⁰⁾라 하여 유교적 관점과는 어긋나지만, 환자 소생담의 측면에서 볼 때는 延齡甦生之誠이라 하여 유교적 관점과 부합한다. 화자는 전자보다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 D와 G의 화자가 효자를 유별나게 칭송한 점이 그 근거이다. 한편, 모티프 6은 법규 위배담이자 분묘 단장담이다. 법규 위배담의 측면에서 볼 때는 公物私採

10) 韓愈가 한 말로서, ‘신체를 훼손시키고 자손을 끊어지도록 한 죄’라는 의미를 지닌다. 金富軾, 『三國史記』列傳, 向德聖覺條에 이 용어가 소개되어 있다.

之罪라 하여 의무론적 관점과 어긋나지만, 분묘 단장담의 측면에서 볼 때는 孝親鋪錦之事라 하여 의무론적 관점과 부합한다. 화자는 전자보다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 J의 권효자를 유별나게 칭송한 점이 그 근거이다. 孝가 유교적 관점도 초월하고 의무론적 관점도 초월하므로, 孝야말로 절대 가치이다.¹¹⁾

비정합성 모티프를 통해 孝를 절대가치로 설정할 때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념이 인물을 지배하는 현상이 그 첫 번째이다. 인물마다 개성이 있게 마련이나, 이념이 인물에 침투하면서 개성은 없어진다. 효자전의 주인공 간에 차이점이 적고 공통점이 많은 까닭이 이 때문이다. 합리성보다 당위성이 환경을 지배하는 현상이 그 두 번째이다. 합리성이 높아지면 환경에 따라 ‘행하지 못할 孝’가 생겨나고, 당위성이 높아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될 孝’가 생겨난다. 효자전에서는 당위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될 孝’가 많다. 효자전에서는 이념이 인물을 지배하고 당위성이 환경을 지배한다. 그 결과, 효자의 형상은 기형적으로 나타난다. 용기 있게 孝를 행하되 사적 감정은 거의 지니지 못했으니, 효자의 형상이 生物學의 범주에 들지언정 人間學의 범주에 들기는 어렵다.

인간학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효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우선, 효자는 오로지 孝를 행하기 위해서 산다. 출세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부모 봉양을

11) 安孝子傳, 『鵝溪遺稿』卷3의 논찬부를 주목해볼 만하다. ‘아이의 정성이 금석을 뚫고 귀신을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과 ‘선량한 천성을 잃고 사육에 뒤달려 몽매해지면 죽은 부모를 살려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대상이다. 전자는 孝가 절대가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를 가리키고, 후자는 孝가 사육에 가려져서 절대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를 가리킨다.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오로지 孝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개인적 삶이란 전혀 없고 부모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그 다음으로, 孝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의 육신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업조차 가볍게 여기고 종래에는 자신의 삶조차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오직 孝를 행하기 위해 살고 孝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孝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효자는 마치 ‘孝라는 유전인자만을 지닌 존재’에 불과하므로, ‘孝를 행하는 기계’라 해야 옳다.

효자를 ‘孝를 행하는 기계’로 형상화한다고 해서 ‘孝를 행하는 기계’가 효자 형상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효자도 생물학적 인간인 이상, 갈등이나 고통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을 존재론적으로 정리하면, ‘효자는 원래부터 孝를 행하는 기계였던가 효자이기 위해 孝를 행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던가?’이다. 효자가 원래부터 기계일 리가 없으므로, 단연 후자가 옳다. 후자가 되는 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성싶다. 효자를 기계로 형상화하는 주체가 화자이기 때문에, 화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부모가 사경을 헤맬 경우, 효자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고 한다.¹²⁾ 애통한 감정이 북받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고 볼 때, 효자는 나름대로 감정 표현을 분명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과 고통도 당연히 느낄 터이나 화자가 그런 정황을 차단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화자가 감정의 추이를 왜 차단하는지가 의문이다.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화자가 孝를 極尊無對의 위치에 올려놓는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12) 효자전 D, G, H에 그런 모티프가 담겨 있다.

절대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극존무대로 여긴다고 볼 때, 상대가치의 대상은 절대가치의孝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 효자의 감정이 그런 예이다. 인간의 감정이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슬픔을 느끼다가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끼다가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 절대가치의 권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가변적 감정인 상대가치를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화자가 상대가치인 가변적 감정을 제거하고자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화자의 노력으로 인해 효자는 투철한 효이념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효자가 엄연히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孝를 행하는 기계’가 되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큰 기회비용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Ⅲ. 효자전의 유형과 그 유교적 효윤리

효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효자전 A~J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효자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孝를 행하는 효자전과 현실적인 여건을 넘어서서孝를 행하는 효자전이 그것이다. 전자를 현실지향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이상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분기점은 ‘신명의 관여 여부’이다. 즉, 신명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자가 주체적으로孝를 행하면 현실지향형이 되고, 신명이 관여해서 효자의 행위를 도와주면 이상지향형이 된다. 전자와 후자는 동일하지 않다. 효윤리의 지향을 下學과 上達로 구별할 때¹³⁾ 현실지향형은 하학의 측면이 우세하고 이상지향형은 상달

13) 『論語』憲問篇에 나오는 용어로서, 君子는 上達에 치중하지만 小人은 下達에 치중한다고 한다. 하학이 상달과는 달리 부정적이기만 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下學’은 범백일상의 器로서 ‘기본에 충실한 태도를 가리키고 ‘上達’은 형이상의 道로서 ‘우주

의 측면이 우세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효자전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이 지닌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1. 효자전의 유형

효자전 A~J 중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은 반반이다. 즉, 현실지향형은 A, B, E, F, J으로서 다섯 편이고, 이상지향형은 C, D, G, H, I으로서 다섯 편이다.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에 나타난 효자의 양태는 서로 다르다. 현실지향형의 경우는 인간의 삶과 천지신명이 상호 무관하기 때문에 천지신명에게 기댈 수 없다고 여기고, 이상지향형의 경우는 인간의 삶과 천지신명이 상호 긴밀하기 때문에 천지신명에게 기댈 수 있다고 여긴다. 전자에서는 효자의 주체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고 후자에서는 효자의 의존적인 행위가 두드러진다. 화자가 효자의 주체적인 행위나 의존적인 행위를 분별하지 않지만, 화자가 전달하는 효자의 행위에서 그런 양상이 드러난다.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면서 두 유형을 견주기로 한다.

□ 현실지향형의 경우

- A. 임효자는 신분은 미천한데도 효성은 지극했다. 그 부인도 본을 받아 효성이 극진했다. 시모가 기름 항아리를 요강인 줄 착각하고 실수하자 시모가 무안하지 않도록 하며 잘 처리했다. 임효자는 이 사실을 알고 섬돌에 내려가 부인에게 두 번 절했다.(林孝子傳)
- B. 정효창은 부친을 살해한 죄금을 구금시킨다. 제2, 제3의 비호 세력이 등장하지만, 정도창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10여 년

적 性命을 체인하는 태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학과 상달은 선후 관계로서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동안 상복도 벗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은 채 여러 곳을 찾아 헤매며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모두 찾아 죽인다. 조정에서 정도창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정려를 내렸다(鄭孝子傳)

E. 김충렬은 소시적 배우지 않고도 자식으로서의 禮를 알았다. 조모 사후 3년간 상복을 입었고, 首經과 腰帶를 벗지 않았다. 61세에 모친이 별세하자 여막에 거처하면서 슬픔을 다했다. 부친이 기세할 때 服喪하지 않았다고 한탄하다가 71세에 기어이 追喪했다. 임금이 알고 정표와 식물을 하사했다.(孝子 金忠烈傳)

F. 한룡은 부친이 출타해서 귀가하지 않자 유기상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닌다. 숲속, 들판, 호랑이굴과 도깨비굴 등 수소문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6년 뒤에 집에 와서 모친에게 절하면서 부친을 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며 또 다시 나간다. 금강산 표훈사에서 부친의 소식을 듣고 묘향산에 이르니, 부친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서 집에 돌아와 3년상을 정성껏 치뤘다.(韓孝子傳)

J. 권재중은 효성이 극진했다. 부모가 죽자 수십 리 밖에 장사지내고 평생 동안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하러 갔다. 돈이 없어 무덤에 莎草를 입히지 못하자 迎恩門 앞의 금지된 사초를 몰래 한 자쯤 캐서 소매에 넣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부모의 무덤에 사초를 입혔다.(權孝子傳)

현실지향형의 경우, 효행 하나하나의 특징이 뚜렷하다. 史書에서나 보듯, 실제로 있었던 효행 사실이 저마다 내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효행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은 ‘인상적 국면의 포착’이다. 해당 부분을 찾아 정리해보면, A에서는 효행 주체인 아내에 대한 임효자의 존숭 태도가 인상적 국면이고, B에서는 부모의 신원에 대한 정효자의 끈질긴 의지가 인상적 국면이고, E에서는 일평생 효자 노릇을 한 김충렬의 행적이 인상적 국면이고, F에서는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부친을 찾으려고 하는 한룡의 발심이 인상적 국면이고, J에서는 남의 사초를 훔쳐서라도 부

친의 분묘를 단장하겠다고 하는 일념이 인상적 국면이다. 인상적 국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주체를 화자라고 볼 때, 화자는 ‘다기하게 전개되는 효자의 행적’을 개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상적 국면을 포착하고자 했으리라 본다.

효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상적 국면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個別的 孝子觀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개별적 효자관을 뒷받침하는 장치는 서로 다른 효행 공간이다. 뭉뚱그려 보면, A에서는 가정이고 E와 J에서는 가정과 사회이고 B와 F에서는 사회이다. 효행 공간이 변별적이니, 인간관계나 효행의 내용이나 사회규범과 효윤리의 갈등 양상이 각기 다르다. 효행을 매개로 하여 상이한 인상적 국면을 보유하므로, 저마다 사회의 한 단면을 전하는 데 손색이 없다. 이런 특징이 가장 강한 경우는 B이다. 효자의 끈질긴 의지가 ‘奴主 갈등, 비호세력과 효자층의 암투’와 결합하면서 효행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준다.¹⁴⁾ 물론, 효행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효자 반대편의 의식이나 행동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명색이 효자전이면서 이 정도의 특징을 보유했다는 점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 이상지향형의 경우

- C. 정관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매우 착했다. 6세에 부친이 부친에서 들에서 돌아오고서야 자기 방에 들어갔고, 몇 년 뒤에 부친의 편지를 보고 병중이었음을 알았고, 부친이 질환을 앓자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여 낫게 했다. 장성해서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약을 팔아 부모를 봉양했다. 병이 들어 나이 30세에 죽었다.(鄭孝子傳)
- D. 서산 하세희는 성품이 지극히 착했고, 소시적부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14) 金泳,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집문당, 1993, pp.130-132 참조

알았다. 조모의 병환이 심해지자 斷指하여 살려내었다. 모친이 또한 위독해지자 엄동설한에 목욕하며 하늘에 비는 한편, 嘗糞하여 병세를 살폈다. 사후에 곡을 하며 슬피 울다가 기절하기에 이르렀고, 여막살이하면서 3년간 죽만 마셨다. 여막살이할 때 호랑이가 하세회를 지켰다. 임금이 하세회를 효행을 전해 듣고 정려를 내렸다.(西山 孝子傳)

G. 안응준은 측실 소생이다. 혼도와 교화에 힘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7세에 모친이 병을 앓아 숨이 끊어지자 손가락의 중지를 짓이겨 그 피를 드리웠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다음날 드디어 모친이 소생했다. 관찰사가 글로써 포장하여 부역을 면하게 했으나, 문서를 감추고 내색하지 않았다.(安孝子傳)

H. 임수복은 영흥도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거나 배우지 못했지만, 홀로 문자를 깨우쳤으며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모친이 매우 괴팍했지만,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성심을 다했다. 모친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하늘에 기도하고 단지하여 모친의 병환을 즉시 낫게 했다. 조정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병란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孝子 林秀福傳)

I. 신유천은 3세에 모친을 여의고 늘 모친을 추념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時祭 때가 되면 모친 묘에게서 울고 몸가짐에 조심했다. 부친이 병중에 들자 정성을 다했고, 상을 당하자 슬픔이 지나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집의 암캐 한 마리가 메추리를 잡아오자 3년 동안 빈소 상식상에 올렸다. 기일이 되면 그 암캐는 메추리 십여 마리를 잡아왔다. 나이 63세에 모친 추상을 하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愼孝子傳)

이상지향형의 경우, 신이한 행적 일색이다. 중국 효자전에서처럼 엄동설한에 잉어가 뛰어나오고 죽순이 돌아난다는 식의 내용이 그것이다.¹⁵⁾ 가령, C에서는 기도로써 부친을 낫게 하고, D에서는 단지로써 조모를 낫게 하고, G에서는 단지와 기도로써 죽은 모친을 살려내고, H에서는 단지와

15) 『三綱行實圖』〈孝子篇〉의 〈王祥剖氷〉과 〈孟宗泣竹〉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효자의 신이한 행적을 거론할 때 흔히 이 내용을 사례로 들곤 한다.

기도로써 절명 직전의 모친을 살려내고, I에서는 암개가 주인을 위해 매추리를 잡아온다. 효자의 행위가 비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이한 행적이라 할 수 있다. 신이한 행적이 각기 다른 듯하나, 신이한 행적과 효자의 특성 간에 긴밀성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르다고 해도 큰 의의는 없다.¹⁶⁾ 다시 말해, 특정 효자에게 어떤 신이한 행적이 결부되더라도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기도 효행이 나타나는 C에서 단지 효행이 나타난다거나 단지 효행이 나타나는 D에서 기도 효행만 나타난다거나 해서 하등 이상하지 않다.

효행이라고 하면 모두가 같기 때문에 ‘효행 보따리’¹⁷⁾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는 시각을 集團의 孝子觀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집단적 효자관의 영역에서는 효자보다 효행이 우위에 선다. 화자가 효행을 서술할 때 감명을 줄 만한 내용을 이른바 ‘효행 보따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¹⁸⁾ 문집 소재 효자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효자와 천지신명의 거리가 어느 효자전에서나 일정하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화자의 소망이 구현된다면 천지신명과 효자의 거리가 가깝고 효자의

16) 이상지향형에서는 특정 효자의 효행을 기준에 널리 알려진 비일상적 효행 사례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어색해 보이듯이, 효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신이한 행적을 끌어오면, 인물과 행위 간, 환경과 관념 간의 긴밀성은 사라지고 만다. 정운채, 앞의 글, 58쪽에서는 효자전이라는 장르에 ‘이전의 효행 사례와 같아야 한다.’는 강박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7) 여러 효행 사례를 모아놓은 곳을 ‘효행 보따리’라 지칭해 본다. 효행 보따리는 가시적인 경우도 있고 비가시적인 경우도 있다. 가시적인 경우는 行實圖類와 地域地理志 등의 효행담 모음집이고 비가시적인 경우는 머릿속에 저장된 효행담 모음집이다. 대체로 유식자층에서는 가시적인 ‘효행 보따리’를 활용하고, 무식자층에서는 비가시적인 ‘효행 보따리’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18) 가시적인 ‘효행 보따리’로서 가장 적절한 사례는 行實圖類의 教化書이다. 행실도류 교화서의 효자는 엄연히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느 효자든 간에 효행의 내용은 거의 일정하다. 극진한 효성이라고 하면 으레 割股, 斷指, 吮腫, 代殺 등의 형태이다.

소망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천지신명과 효자의 거리가 멀다고 할 때, C와 D와 G와 H와 I에서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 효자가 주야로 기도하거나 단 지하기만 하면 곧 바로 병자가 완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집단적 효자관에 의거하면 효행 건수는 많아도 효자 수는 한두 명이나 진 배 없다.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은 적지 않게 다르다. 현실지향형은 개별적 효자관에 의거하여 각 효자의 인상적 국면을 포착할 뿐 아니라 효자전마다 효행 공간을 달리 한다. 효자전의 인상적 국면이 각기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므로, 효자전 모두를 수합하면 사회의 전체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이상지향형은 집단적 효자관에 의거하여 ‘효행 보따리’에서 전형적인 효행을 끄집어낼 뿐 아니라 효자와 천지신명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좁힌다. ‘효행 보따리’에서 전형적인 효행을 가져오므로, 효자전을 수합해보면 효행 건수는 증가하되 개성적 효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생긴다. 양자의 차이점은 상호 치중하는 바가 다른 데서 연유한다. 현실지향형은 효행보다 효자에 치중하고 이상지향형은 효자보다 효행에 치중한다. 효자전의 두 유형은 명목상으로는 다 같은 효자전이되 치중하는 바는 이처럼 서로 다르다.

2. 유형별 유교적 효윤리의 양태

효자전의 두 유형이 판이하다면, 각 유형의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지향형은 개별적 효자관에 입각해 있고 이상지향형은 집단적 효자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상이하기는 할 것 같다. 아마도 현실지향형에서는 개별적 효자관을 뒷받침하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나타날 터이고 이상지향형에서는 집단적 효자관을 뒷받침하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나타날 터이다. 과연 두 유형의 유교적 효윤리 체계

는 각기 어떠하며 서로 어느 정도 다른가? 어느 효자전이든 특정한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 입각한다고 밝힌 바 없으므로,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효자전을 통해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각 유형에 합당한 효윤리 체계를 추출하고 유형별 유교적 효윤리의 양태를 점검하기로 한다.

현실지향형에서는 효자의 힘을 강조한다. 효자가 생득적으로 특별한 힘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지극한 효행’이 효자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한다. 힘의 양상은 다양하다. 그 양상을 정리해보면, A에서는 ‘남존여비의 관습 깨뜨리기’이고 B에서는 ‘부조리한 세계 타파하기’이고 E와 F에서는 ‘체면 치레 효행에 경중 울리기’이고 J에서는 ‘범법의 두려움 떨쳐내기’이다. 각기 그 근거를 들면, 효자가 부인에게 두 번이나 절한다는 점, 효자가 살인범의 비호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를 찾아내서 처단한다는 점,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일신을 다 바쳐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점, 부모의 분묘를 단장하기 위해 남의 사초를 훔친다는 점이 된다. 효자의 처지나 위상을 감안할 때 효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힘은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힘은 종종 의외의 福을 불러오기도 한다. 조정의 命旌 措置가 그것이다.¹⁹⁾

한편, 이상지향형에서는 신명의 힘을 강조한다. 신명은 효자의 힘이 한계를 드러낼 때 개입한다. 효자가 지극한 효행으로 힘을 지니기는 했지만, 그런 힘에도 한계가 있다. 효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큰 까닭이다. 인간존재의 한계 상황 내에서 효자의 힘을 설정하기 때문에 신명의 힘이라도 개입되어야 한다. C, D, H와 같이 불치의 병환이 치유되거나

19) 명정 모티프가 나오는 효자전은 B와 E뿐이다. B에서는 조정에서 정도창에게 정려를 내렸고 E에서는 임금인 김충렬에게 정표와 식물을 내렸다고 한다. B와 E 정도의 효행으로 정려의 대상이 되었다면 여타 효자전의 경우에도 정려의 대상이 되었을 직하다. 정려의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지만, 정려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화자가 미처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전체 효자전의 주인공이 모두 대단한 효자이므로, 일단 정려의 대상이 될 만한 여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G와 같이 망자가 부활하거나 I와 같이 극빈자가 욕미의 제수품을 장만하는 경우가 신명의 힘이 개입한 증좌이다. 신명의 힘을 끌어들이기까지 효자가 실제로 한 바는 간절한 기도나 염원뿐이지만, 이 간절한 기도나 염원이 신명의 힘을 끌어들이어 불치의 병을 고치고 망자를 되살리고 욕미의 제수품을 장만한다.²⁰⁾ 그 결과, 효자는 조정으로부터 칭송과 포상의 대상이 된다. 불가능한 문제는 신명이 담당하고, 포상의 영광은 효자가 담당한 셈이 된다.

□ 서술 초점

현실지향형 : 효자의 힘

이상지향형 : 신명의 힘

□ 유교적 효윤리 체계

현실지향형 : 지극한 효행→문제 해결→칭송과 포상

이상지향형 : 간절한 기도→지극한 효행→문제 해결→칭송과 포상

두 유형은 서술 초점과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서 서로 다르다. 서술 초점과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연관성 깊다. 서술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 유교적 효윤리 체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지향형에서는 서술 초점을 효자의 힘에 둬으로써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지극한 효행→문제 해결→칭송과 포상’으로 나타나고, 이상지향형에서는 서술 초점을 신명의 힘에 둬으로써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간절한 기도→지극한 효행→문제 해결→칭송과 포상’으로 나타난다. 두 유형의 차이를 판가름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간절

20) 효자전에서는 기이한 행적 그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기이한 행적을 유발한孝의 권능에 주목한다. 조선시대 각종 行實圖類에 허다하게 실린 孝行敘事도 대부분 이런 차원에 입각해 있다.

한 기도'이다. 즉, 현실지향형에서는 효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상지향형에서는 효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간절한 기도'의 유무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문제 해결'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과연 각 유형의 본질도 다른 것인지가 관건이다. 효자가 직면한 문제의 성격을 따져서 의문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향형의 경우에는 효심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제시된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상지향형의 경우에는 효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시된다. 중환자를 치유한다든지 망자를 되살린다든지 궁가에서 육미를 장만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신명이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현실지향형의 경우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제시되고 이상지향형의 경우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제시되므로, 양자는 문제 제시의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각 유형의 본질까지 서로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현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유형에서 문제 제시의 방향을 달리 하는 까닭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비유컨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두 유형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두 유형을 한데 묶어서 이해해야 옳다. 다시 말해, 두 유형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효자를 각기 다르게 형상화했으나, 유교적 효윤리 체계 내에서 효자의 힘과 신명의 힘을 따지면 된다. 효자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응할 경우에 효자의 힘이란 '기본에 충실한 태도'를 가리키고, 효자가 신명의 힘에 기대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응할 경우에 신명의 힘이란 '우주적 性命을 체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유학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태도'를 下學이라 하고 '우주적 성명을 체인하

는 태도'를 上達이라 하므로, 현실지향형은 하학의 차원에서 효자를 형상화하고 이상지향형은 상달의 차원에서 효자를 형상화한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현실지향형은 당연히 하학과 연관되겠지만, 이상지향형은 왜 상달과 연관되는가? 효자가 신명에게 기도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효자의 기도가 왜 '우주적 성명을 체인하는 태도'와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로 치환이 가능하다. 효자의 기도는 '性卽理'와 연관이 깊다. '성즉리'란 모든 존재의 性이 태극의 理와 하나라고 여기고 그 하나인 이치를 窮究해야 한다는 성리학 적 명제이다.²¹⁾ 신명이 '태극의 理'인 천리와 類義語라는 점에서, 신명을 향한 효자의 기도는 천리 궁구의 노력과 비견할 만하다. 효자의 기도가 지니는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효자의 기도가 천지만물과 화동할 때는 민간신앙의 대칭적 세계관과도 흡사하다.²²⁾ 孝가 짐승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D와 I가 그 예이다. 결국, 이상지향형은 상달의 차원을 설정함으로써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민간신앙의 영역까지 끌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총괄적 정리

현실지향형 : 효자의 힘 - 기본에 충실한 태도 - 하학의 차원

21) 程頤가 주창자이다. 孟子의 性善說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 행위의 근거를 天理에 두었다. 本性이 순선무악한 천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다. 주자는 정이의 人性論을 더욱 체계화하여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이라는 性二元論으로 발전시켰다. “性卽理也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中庸章句』)” 참조.

22) 대칭적 세계관은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면서도 내밀하다고 여기는 문화적 시각으로서, 아주 오랜 시기부터 여러 문학 장르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른바 환상기괴담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1-306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상지향형 : 신명의 힘 - 우주적 성명을 체인하는 태도 - 상달의 차원

이 논점에 의거하여 효자전의 창작방법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작자가 하학의 차원에서 효자를 입전하고자 할 때는 범백일상에서 최고의 인상적 국면을 모티프로 설정하고, 작자가 상달의 차원에서 효자를 입전하고자 할 때는 ‘효행 보따리’에서 비정합성 모티프를 끄집어내서 효자전의 주요 모티프로 삼는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서술기법이 엇갈린다. 전자에서는 사실주의가 서술의 기초가 되고, 후자에서는 낭만주의가 서술의 기초가 된다. 논점을 통해, 두 유형의 특징을 두더쥐의 꼬리와 몸통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이라는 유형 명칭은 두더쥐의 꼬리에 해당되고 각 유형의 창작방법은 두더쥐의 몸통에 해당된다. 꼬리를 잡아당기면 몸통이 드러나듯, 현실지향형을 들추면 하학의 차원과 사실주의적 기법이 나타나고 이상지향형을 들추면 상달의 차원과 낭만주의적 기법이 나타난다.

IV.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사상적 특징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공리성이 강하다. 효행 주체가 효행으로 그 자신이 행복하고 사회가 유익해진다고 여긴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효자이면서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지배를 받는 까닭은 효자가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유교적 효윤리의 지배 수단은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현실지향형의 경우는 ‘지극한 효행→문제 해결→포상 대상’에서 나타난 ‘있는 것’의 가치이고, 이상지향형의 경우는 ‘간절한 기도→지극한 효행→문제 해결→칭송과 포상’에서 나타난 ‘있어야 할 것’이다. 유교적 효윤

리 체계가 효자를 통제한다면 그럴 만한 특징을 지니게 마련이다. 과연 그 사상적 특징은 무엇인가? 효자전에서는 인성론과 가치론의 측면에서 답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그 답을 세밀하게 탐색하기로 한다.

1. 초규범으로서의 인성론적 성격

효자전을 대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의문이 있다. “왜 효자는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효심을 발휘하는가?”가 그것이다. 생득적인 효자였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면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진다. 효자는 거개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환경에 순응하면 체면을 지키고 화평을 누릴 수 있지만, 원래의 심성을 보유한 채 환경과 끝까지 맞선다. 이런 현상을 효심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효자를 이끄는 강력한 이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그것이다. 어느 효자전에서나 효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효자전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단서를 수합하면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E. 대저 천지 사이에는 物만 있고 법칙이 없는 것은 없되 物과 法則 가운데는 오직 孝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고금을 통해 자식으로서 효도한 자는 왜 그리도 적은가. 이는 바로 기질과 물욕이 가리기 때문이다. 김군 같은 사람은 가린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 성상께서 그의 宅裏에 旌表했으니 효도의 일단을 볼 수 있는데, 諸公이 선후로 발휘한 것은 또한 선한 본성을 권장하고 풍속을 격려하는 데 일조가 되겠다.(孝子 金忠烈傳, 『宋子大全』卷214)

G. 아! 인륜을 아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부모가 없겠으며 누군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왕왕 선량한 천성을 잃고 사육에 뒤덮혀 몽매해져서 죽은 부모를 살려

낼 수 없음은 물론이요 도리어 살아계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이 응준을 본다면 아마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安孝子傳, 『鵝溪遺稿』卷3)

E와 G에서는 효자가 왜 생득적 심성을 잃지 않는지를 밝히고 있다. G에서 말한 ‘인륜을 아는 천성’이 곧 E에서 말한 ‘선한 본성’이므로,²³⁾ 이 취지에 기대어 생득적 심성을 잃지 않는 이유를 캐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륜을 아는 천성’을 지녔지만, 대개는 기질과 물욕에 휘둘려 ‘인륜을 아는 천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기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선한 본성’이 人欲에 휘둘리거나 하기 때문이다. 효자전의 효자는 이와 다르다. E에서는 김충렬이 인욕에 가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G에서는 안응준이 ‘선한 천성’을 잃지 않았다고 하므로, 두 효자는 인욕에 이끌리지 않고 ‘선한 본성’을 잘 간직한 자가 된다. E에서 ‘인륜을 아는 천성’이 ‘선한 본성’이라 설명한 이상, 이 설명은 두 효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여타 효자전의 효자도 인륜에 충실하므로 마땅히 ‘선한 본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氣質之性이 유족한 환경에서보다 人欲을 더 많이 분출하기 때문이다.²⁴⁾ 敬으로 인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논리에 기댈 때,²⁵⁾ 효자는 무엇보다 敬을 투철하게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효자전에서도 敬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효자를 견인하는 이상, 敬으로 효자의 처지를 설명하는 길이 최적이다. 다

23) E에서 언급한 ‘선한 본성’과 G에서 언급한 ‘인륜을 아는 천성’은 상호 별개이지만, 의미상이나 문맥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24) 曹玟煥, 『朱熹 天理人欲之辨에 관한 美學的 研究』, 『儒教思想研究』6, 韓國儒敎學會, 1993, p.156 참조

25)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 출판부, 1998, p.169 참조

시 말해, 효자가 敬을 투철히 하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견지하며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존재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가령, B의 효자가 10년 이상이나 상복을 입고 C와 G와 H의 효자가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고 D의 효자가 엄동설한에 목욕하며 하늘에 빌 수 있는 동인이 투철한 敬으로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선한 본성’으로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 효와 사회규범이 충돌할 때가 그런 경우이다. 예컨대, B의 정도창은 부친의 원수를 범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 스스로 처단했다. 원수를 처단했으니 ‘인륜을 아는 천성’은 구현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으니 사회규범은 위반했다. 한편, J의 권재중은 남의 사초를 훔쳐서 몰래 가져갔다. 부친의 분묘를 단장했으니 ‘인륜을 아는 천성’은 구현했지만,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사회규범은 어겼다. B와 J의 효자가 사회규범을 어긴 이상, ‘선한 본성’을 보존했다고 할 수는 없다. 효자가 사회규범을 어겼는 데도 화자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B의 효자는 조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고 J의 효자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한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칭송과 포상’에 의거해서 상이니 칭송이니 하면서 孝로써 사회규범을 덮어버리고자 했다.

사회규범을 쉽게 덮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孝와 사회규범의 拮抗關係가 B와 J에만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효자전의 구도에서는 효와 사회규범이 엇갈릴 소지가 많다. 효행 공간이 가정으로 한정되면 사회규범이 작용하지 않겠으나, 효행 공간이 가정 밖으로 확장되면 사회규범이 작용한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영향권에 있는 효자는 사회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孝를 행하고자 하고, 사회규범은 그런 孝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孝와 사회규범이 엇갈릴 때마다 화자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 의거해서 孝로써

사회규범을 덮어버리려 할 터이다. 孝로써 사회규범을 뒤덮으려 하는 시각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효자전에서 효행의 절차보다는 효행의 결과를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공리주의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화자의 공리주의적 시각이 사회규범을 孝로써 덮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서, 효자가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효심을 발휘하는 까닭을 밝혀볼 수 있다. 효자의 효심은 효자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라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 의해 포출된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효자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지배 과정은 3단계로 나타난다. 제1단계에서는 효자가 투철한 敬으로써 ‘선한 본성’을 보존하도록 하고, 제2단계에서는 ‘선한 본성’이 孝에 절대가치의 권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3단계에서는 孝의 절대가치가 사회규범을 덮어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보니,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단순한 인성론에 속하지 않는다. ‘선한 본성’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인성론에 속하지만, 孝를 내세워 사회규범을 압도하기 때문에 초규범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결국,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인성론에 속하되 초규범으로서의 인성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존재 목표로서의 가치론적 성격

효자전의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서 孝의 위상이 높다. 孝가 중환자를 완치시키고 효자를 포상 대상으로 만든다고 한 점이 그 근거이다. 孝가 열악한 효자를 일거에 포상자로 바꾸어 놓았으니, 孝야말로 인간사에서 최고 위상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이처럼 효자전에서는 인간을 평가할 때 신분이나 환경이 아닌 孝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孝를 절대가치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현실지향형과 이상지향형이 다를 바 없다. 즉, 현실지향형에서도 포상 관련 내용²⁶⁾이 나타나고 이상지향형에서도 포상

관련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가치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실제로는 효가 절대가치를 지니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효자전에서는 혼한 듯이 제시한다. 효자전이 과연 무엇을 노리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효에 대한 절대가치의 부여 방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어느 효자전에서나 효자가 ‘유별난 행동’으로 포상받을 위치에 이른다고 하므로, ‘유별난 행동’을 주목해볼 만하다. 가령, A의 효자는 뜰에서 처에게 두 번 큰 절을 했다. 탁 트인 뜰에서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는 현상이 기이한데, 작자가 효자의 행적 중 유별난 국면을 끄집어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A의 ‘유별난 행동’은 그 자체로 마무리되지만, 대부분의 효자전에서는 ‘유별난 행동’이 ‘특별한 효험’으로 연결된다. 즉 ‘유별난 행동’을 하자 ‘특별한 효험’이 생겨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실제로는 ‘유별난 행동’이 ‘특별한 효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 듯하다. ‘특별한 효험’이 ‘유별난 행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드문 사실을 보편적 현상으로 과장한 까닭은 효에 절대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작자가 효에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속임수에 가깝다. 효자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유별난 행동’을 하자 불치의 병에 걸린 부모가 완치되고, 부모의 원한이 말끔이 씻기고, 상례 예절이 전국적인 전범이 되고, 부모의 분묘가 멋지게 단장된다고 하니, 異迹을 가장한 속임수라고 해야 옳을 성싶다. 만약 작자가 서술한 ‘유별난 행동’과 ‘특별한 효험’의 전개, 그로 인해 형성되는 효의 절대가치가 속임수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포상 장면도

26) 史書에서는 으레 포상 등급과 포상 내역이 소개되곤 하지만, 문집 소재 효자전에서는 포상 등급과 포상 내역이 자세하지 않다. 정려를 받았다고 하거나 식물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포상 등급과 포상 내역에 대해서는 신태수,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 『語文學』127, 韓國語文學會, 2007, pp.181-183 참조.

속임수이다. 독자가 작자의 속임수를 모를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누구나 효행 건수보다 포상 건수가 훨씬 적었다²⁷⁾는 사실쯤은 알고 있을 터이므로, 작자의 속임수는 독자가 수용할 만한 윤리적 차원의 속임수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작자가 설정하는 윤리적 차원의 속임수를 독자가 알면서도 받아들일 때, 작자와 독자는 유쾌한 속임수의 공모자가 된다.

작자와 독자가 유쾌한 속임수를 공모하는 경우는 의외로 흔하다. 『三綱行實圖』〈효자편〉이 그런 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했다. 조정에서 ‘지극한 효성으로 신명과 짐승 감동시키기’ 모티프와 ‘제 철 아닌 먹거리 구하기’ 모티프 등을 수집하고 반포한 경우는 그 좋은 예이다. 이런 모티프에는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유별난 행동’을 담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겠으나,²⁸⁾ 대부분의 독자는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당대에는 윤리적 차원의 속임수를 흔쾌하게 수용하는 관행이 있었다.²⁹⁾ 정치적·사회적 이념이 왕성할 때, 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윤리적 차원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비교

27) 『世祖實錄』卷12, 世祖 4年 4月 庚申條에서 “觀察使守令 慢不致意 便良法美意 徒爲文具”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中宗實錄』卷62, 中宗 23年 8月 庚辰條에서도 나타난다. 이로 보아, 관찰사와 수령이 태만해서 효자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효행 건수보다 포상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28) 당대 효행서사의 향수자들이 효의 절대가치를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았다. 즉, 다수의 향수자들이孝가 지닌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본고의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본고의 자료를 벗어나면 그런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가령, 李萬敷, 『息山集』卷20, 孝子烈婦忠奴列傳에서는 효자가 물에 빠진 부친을 구하려고 하다가 함께 죽었다고 하고, 金起泓, 『寬谷集』卷4, 孝子方戒令傳에서는 효자가 호식당한 부친을 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부친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한다. 이 두 자료의 화자는 제 아무리 지극한 효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9) 『咸州誌』, 『晉陽誌』 등과 같은 지역 지리지에는 기이한 효행담이 허다하게 나타난다. 기이한 효행담을 수집하는 자나 제작·반포하는 자나 간에 효행서사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라고 믿지 않았을 터이다. 상호 목계하에 윤리적 차원의 속임수를 받아들였다고 여겨진다.

적 관대하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효자편〉 이래로 아류 효행서사가 양산되면서 유쾌한 속임수가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잡은 바인데, 효에 대한 절대가치 인식은 이와 같은 사회적 관행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유쾌한 속임수가 절대가치를 담보한다면, 효자 스스로 절대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쾌한 속임수에 의해 ‘있는 것’의 가치에서 ‘있어야 할 것’의 가치로 이행한 듯이 보일 뿐이다. 당연히 효자가 절대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현상은 일종의 錯視이다. 유쾌한 속임수가 미흡해서 ‘있는 것’의 가치와 ‘있어야 할 것’의 가치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착시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은 외길이다. 오직 ‘있는 것’의 가치와 ‘있어야 할 것’의 가치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좁혀서, 유쾌한 속임수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효자의 위상은 하나로 고정된다. 효자가 절대가치를 보유하되 실제로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며 감정 없이 ‘孝를 행하는 기계’가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효자에게는 ‘孝를 행하는 기계’가 되거나 무기력한 인간이 되거나 하는 길밖에는 없다.

유쾌한 속임수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서 기인하므로, 유교적 효윤리 체계에 희생의 논리가 숨었다고 할 수 있다. 효자는 ‘있어야 할 것’의 가치에만 매달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이끄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끌려가기만 한다. 신체 부위를 훼손시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주저하지 않는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효자로 인해 질서가 굳건해지고 사회가 밝아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인간학적 관점에서는 효의 절대가치로 인해 또한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존재 목표로 인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 터이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감지되는 희생의 논리가 다름 아닌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가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공

리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효자는 ‘孝를 행하는 기계’를 면하기 어렵다.

V. 결론

조선시대 개인문집 소재 孝子傳에는 아주 특별한 효자가 등장한다. 이른바 ‘아주 특별한 효자’의 형상에는 몇 겹의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효행 정도가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과 효자의 요건이 일정하게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점과 효자 탄생을 부추기는 이념이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효자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론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품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자전의 사회적 위상이 밝혀지겠기 때문이다.

효자전의 주인공은 일반적 인간과는 다르다. 봉양에 渾身을 다하느라 갈등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非整合性 모티프를 통해 볼 때, 孝가 유교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을 초월한다. 孝 이념은 그야말로 절대가치다. 그 결과, 효자의 형상은 기형적으로 나타난다. 孝를 행하되 사적 감정이라곤 거의 지니지 못했으니, 마치 ‘孝를 행하는 기계’와 같다. 실제로 효자가 ‘孝를 행하는 기계’일 리는 없고 화자가 효자의 인간적 감정을 차단한다고 할 수 있다. 효 이념을 강조하느라고 효자를 ‘孝를 행하는 기계’로 만들었으니,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효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효자전의 유형은 두 가지다. 효자가 인간 존재의 한계 내에서 孝를 행하는 현실지향형과 인간존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孝를 행하는 이상지향형이 그것이다. 현실지향형에서는 個別的 孝子觀에 의거하여 효자의 인상적 국면을 포착하고, 이상지향형에서는 集團의 孝子觀에 의거하여 ‘효행 보따리’에서 전형적인 효행을 끄집어낸다. 양자

의 차이점은 치중하는 바가 다른 데서 연유한다. 현실지향형은 효행보다 효자에 치중하고 이상지향형은 효자보다 효행에 치중한다. 두 유형은 다 같은 효자전이되 치중하는 바는 이처럼 서로 다르다.

두 유형이 판이하므로 유교적 효윤리 체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현실지향형에서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지극한 효행→문제 해결→포상 대상’으로 나타나고, 이상지향형에서는 유교적 효윤리 체계가 ‘간절한 기도→지극한 효행→문제 해결→포상 대상’으로 나타난다. 두 유형의 차이를 판가름하는 요인은 ‘간절한 기도’이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없는 현실지향형에서는 下學에 입각한 ‘기본에 충실한 효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이상지향형에서는 上達에 입각한 ‘우주적 성명을 체인하는 효자의 태도’가 강조된다.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공리적 특징을 무엇인가? 인성론의 측면에서 볼 때, 효자전에서는 孝를 사회규범보다 상위에 올려놓는다. 敬으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유교적 효윤리 체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孝로 사회규범을 덮어버린다. 가치론의 측면에서 볼 때, 효자전에서는 ‘유쾌한 속임수’를 구사하며 ‘있는 것’의 가치에서 ‘있어야 할 것’의 가치로 나아간다. 유쾌한 속임수가 孝의 절대가치를 담보할 경우, 유교적 효윤리 체계의 위상은 높아지고 효자의 위상은 낮아진다. 즉, 유교적 효윤리 체계는 효자의 존재 목표가 되고, 효자는 ‘孝를 행하는 기계’가 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寬谷集』 『論語』 『三綱行實圖』

『三國史記』 『息山集』 『中庸章句』

2. 논문 및 단행본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 출판부, 1998, p.169.

金 泳,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집문당, 1993, pp.130-132.

金血祚, 『朴孝娘 사건과 그 문학적 演變』, 『人文研究』10,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pp.77-105.

宋載邵, 『<鄭孝子傳>을 통하여 본 茶山倫理觀의 一端』, 『民族文化』19, 韓國古典翻譯院, 1996, pp.153-162.

신태수,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 『語文學』127, 韓國語文學會, 2015, pp.186-198.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1-306.

옥영정, 『삼강행실도 편찬 배경과 조선 초·중기 사회의 변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pp.91-92.

윤진원, 『전통 도교윤리는 결과론적인 것인가 의무론적인 것인가?』, 『道敎文化研究』38, 韓國道敎文化學會, 2013, p.96.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통일인문학』3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0, pp.51-68.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敎思想研究』37, 韓國儒敎學會, 2009, pp.126-129.

曹玟煥, 『朱熹 天理人欲之辨에 관한 美學的 研究』, 『儒敎思想研究』6, 韓國儒敎學會, 1993, p.156.

Abstract

The Confucian Filial Duty Ethics of Filial Son Stories in Personal Collections of Works

Shin, Tae-Soo

The protagonists of filial son stories in personal collections of works published during Joseon are different from common people. They can have almost no personal feelings and thus act like "machines performing filial duties." Filial son stories can be divided into reality- and ideal-oriented ones according to the acts of filial sons. In the former, the writers capture the impressive aspects of filial sons based on their personal viewpoints of filial sons. In the latter, the authors extract typical acts of filial duty from the "package of filial behavior" based on the collective viewpoint of filial sons. Since they have different types, they show different Confucian filial duty ethics systems. The differences mainly come from whether there are "desperate prayers" or not. The reality-oriented filial son stories with no content of "desperate prayers" put an emphasis on the "attitudes of filial sons that are loyal to the basics" whereas the ideal-oriented ones with content of "desperate prayers" highlight the "attitudes of filial sons that recognize the providence of universe." By taking those into consideration, the investigator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filial duty ethics systems, and they were the higher standing of filial duty than the social norms and the move from "values that are present" toward "values that should be present" by doing so-called "pleasant tricks."

Key Word : filial son stories, machines performing filial duties, reality- and ideal-oriented ones, package of filial behavior, Confucian filial duty ethics systems, pleasant tricks, values that should be present.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자우편 : djgjgj@daum.net

이 논문은 2016년 2월 27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